

전주시, 중소기업 지원해 경제 살린다

수출·자금·인력 등 불법 뺀 지원활동 펼쳐

전주시가 올 한해 최악의 경기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은 지역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물품구입부터 제도개선까지 불법을 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올해 초 간부회의 등을 통해 "지역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불법만 아니면 뭐든 다 하겠다"는 자세로 기업지원에 나서달라"고 강조하며,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기업성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제도개선 △수출지원 △자금·인력지원 △환경개선 등 전방위적인 지원활동을 펼쳤다.

시는 272개 지역 업체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수렴한 313건의 애로사항 중 129건을 완전히 해결했다.

나머지 184건의 경우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기업별 애로카드를 작성,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10년간 상수도 시설이 없어 제품생산에 어려움을 겪던 A업체는 전주시가 5600만원을 들여 상수도 시설을 설치해 그간의 고통이 완전히 해소됐다.

또한,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불황 속에 자금난에 허덕이던 B업체는 전주



매몰처리 되고있는 양계

27일 김제시 웅지면 신정리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사육하던 닭들을 땅에 묻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웅지에는 64개 산란계 농장에서 닭 167만4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시는 AI 발생농장 중심 보호 지역(3km) 내에 있는 이들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에 따라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반영돼 내년 2월부터는 해당 업체와 주변 업체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시의 경영지원 자금을 통해 임금과 원재료 부품 구입 등 일시적으로 찾아온 고비를 넘겼다.

시는 이처럼 자금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106개 업체에 149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기업경영에 숨통을 열어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도록 안내했다.

C업체의 경우, 시내버스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팔복동에 위치한 친환경 첨단복합 1 단지를 경영하는 버스노선 신설 요청

을 완화하는 조려와 공장 신·증축 시 조정면적을 대지면적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려를 개정해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는 기술력이 있어도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해외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위해 전시회 참가(45개 업체)와 수출상담회 개최(25개 업체), 무역사절단 파견(21개 업체), 해외바이어 초청 설명회(15개 업체) 등 수출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업지역 내 공장용역을

을 완화하는 조려와 공장 신·증축 시 조정면적을 대지면적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려를 개정해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는 기술력이 있어도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해외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위해 전시회 참가(45개 업체)와 수출상담회 개최(25개 업체), 무역사절단 파견(21개 업체), 해외바이어 초청 설명회(15개 업체) 등 수출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교육청, 분할 수의계약 '엄단'

30건 분할 수의계약 적발·9명 징계·73명 경고 처분

도내 A고등학교는 지난해 3~4월 도서관과 체육관 보수공사를 하면서 총 4천만 원 규모의 공사를 예산 편성과 공사 시기가 같음에도 전문공사별로 5개로 분할하여 9명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통합하여 전문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경적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어서 결국 신분상 처분을 받았다.

같은해 1월 B고등학교는 같은 건물의 화장실과 방화문 교체를 위한 1천 6백만 원의 공사를 2개로 분할해 수

의계약을 맺어 감사에서 적발됐다. C고등학교도 같은 날 공사를 집행하면서 기숙사, 본관 등 건물 별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맺어 적발됐다.

같은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도 있었다. D고등학교는 강당 냉난방기 설치 전기 공사를 9월과 11월, 2차례로 나눠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재무감사 결과 지적사례로 본 분할 수의계약'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주의를 촉구했다

/정해은 기자

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추정가격 1천만 원 이하의 공사 등을 수의계약토록 하고 있으며 1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공개 경적을 받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도내 86개 고등학교(특수 포함)에 대한 재무감사를 벌여 총 30건의 분할 수의계약을 적발해 9명을 징계하고, 73명을 경고 처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사, 물품, 용역계약이 통합 발주하는 게 타당하고 아낄 수 없는 사유가 없는데도 분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내연녀 폭행하고 협박한 경찰관 검찰 송치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내연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박모(39) 경사를 기소·검정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박모 경사는 조사결과 내연녀 A씨(22)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은닉시킨 혐의도 밝혀졌다.

경찰은 박 경사에게 직무무기, 형사 사법질서위반과 폭행·협박, 형의실효에 대한 법률위반, 폭행, 범인은닉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박경사는 지난 6월과 9월 A씨가 낳은 자식을 호적에 올려달라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12% 감축

전주시가 올 한해 추진해온 음식물쓰레기 확 줄이기 운동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물자원화시설장으로 하루 평균 272톤(연간 99,520톤)이 반입됐던 음식물쓰레기양이 올해는 하루 평균 240여톤(연간 8만7634톤)으로 약 12%(1일 32톤) 정도가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시는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이 줄면서 지난해 171억원이었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도 올해는 136억원으로 줄어 35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감축 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주택에서는 1년새 하루 평균 3톤(약 2%)가 줄었으며, 단독주택에서는 하루 평균 2톤(5%)이 감소했다.

/김영재 기자

또, 상가 및 음식점에서는 하루 평균 27톤(28%)의 쓰레기가 줄어 다량배출업소를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 확 줄이기 운동 참여가 돋보였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선포식을 개최한 이후, 전국 평균보다 1.7배나 높은 시민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및 시민운동 전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대표적으로, 시는 오는 2020년을 목표로 지역개발 및 인구변화, 기후변화 등 지역여건과 대내외적 환경의 변동추이 전망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음식물쓰레기 절감계획을 수립했다.

/김영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김주년 시의원 징역 8개월 선고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7일 지난 4.13 총선에서 같은 당 소속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김주년 의원에게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혐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지난 3월 16일 오후 7시경 전북 전주시 평화동 소재의 한 식당에서 평화동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26명에

게 35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는 이자리를 통해 총선에 출마한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 정해진 선거운동 2년 전에는 규정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직위를 상실하는 형을 받아 "제보자의 진술만 믿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점이 크다"며 양형 과다를 이유로 항소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 보고회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나립)는 27일 오전 11시 전주 수라온에서 전주비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등 사업 협력기관장 및 사업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지난해 3월 개관한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올해 전주시 영유아와 부모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위해 장난감대여사업과 놀이실 운영, 부모교육, 부모-자녀체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 어린이집 보육과정 및 운영관련 컨설팅 등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육아종합센터는 이날 보고회에서 우수사례 사업으로 장난감대여 사업과 부모교육, 보육교직원 정보화교육과 무비힐링 행사를 특색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 추진경과와 성과 등을 발표했다.

김나립 센터장은 이날 "앞으로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업무협력과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